



“선교사역의 동역자님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4:35)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 사명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멕시코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1.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❶ 여름성경학교(VBS) 교사강습회는 54개의 교회에서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도 “VBS 교사강습회”가 “빛나라”(Brilla)는 주제로 벨엘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되신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온세상의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강습회가 되었습니다.

❷ 단기선교팀과 VBS사역 3곳, 고아원 사역, 청소년캠프, 한글캠프를 가졌습니다.



- 올 여름은 유난히 티후아나 지역에 잇달은 수도관 파열로 5일 동안이나 단수가 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단기선교팀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영광의 왕교회, 소망의 샘교회, 벨엘 선교교회]에서 각각 3일씩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 무더위도 잊은채로 “80명에서 2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전반기 청소년 연합예배(Los Pescadores-어부들)에 참석한 교회 중에서 14개의 교회를 초청해 2박 3일의 “청소년 캠프”를 베엘선교센터에서 가졌습니다. “Identidad”의 주제로 그리스도인된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한글 캠프와 고아원 방문사역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과 교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멕시코 선한목자 국제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가 9월 14일(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2 학기에는 “QT와 설교준비” “신약개론” “구약개론” “성령론” “구속사적 성경강해”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 훈련되고 헌신된 목회자와 일군을 세우는 신학교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벨엘 선교교회 목회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루이스 목사 부부와 함께 멕시코 사역을 시작한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습니다.

- 아나 사모는 올해 티후아나 사역을 마치고는 선교관에 남은 물건들을 챙겨서 미추아칸 주 교회가 없는 지역에 5명의 단기선교팀을 구성해서 방문했습니다. VBS를 통해, 어린이찬양과 율동을 인도할 리더까지 양육하고 돌아 왔습니다.
- 루이스牧사는 전도사역과 새신자 양육, 소그룹 성경공부와 매주 심방팀을 구성하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4. 특별 기도제목들

⊕ 잠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수)~ 11월11일(수) 까지 건강검진과 소속된 “GP선교회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은혜로운 방문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함께 동역하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교통사고 휴유증 치료중인 정기영선교사의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2026 년 9 월 9 일.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박영완 선교사 드림.
Timoteo YW PARK